

# 산불 지구가 불타는 현장

## 기후환경이야기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경북 울산 등 영남지역 전역으로 확산, 30일까지 10일째 계속되고 있다. 현재 3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주택을 포함 각종 시설물 5100채가 소실되었다.

이 중에 20건의 소중한 국가 문화유산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 면적은 대략 4만 8000ha, 여의도의 160배이자, 광주시의 전체 면적과 비슷하다.

재산 피해는 가능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역사상 최대 최악의 초대형 산불이다.

시민들은 시시때때로 울리는 휴대전화의 산불예방 문자 메시지와 실시간 뉴스로 전해지는 소식을 접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다. 평상시라는 '꽃피고 새우는 화려한 봄날', 꽃구경 다녀와야 하는데 거대산불과 탄핵 뉴스 속에서 말도 꺼낼 분위기가 아니다.

한반도의 남단 영남지역을 불태우는 산불의 주범은 누구이며 왜, 해가 갈수록 산불이 커가는 것일까.

올해 1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LA에서도 대형 산불이 24일이나 지속됐으며 피해 면적은 2만3000ha, 29명의 사망자

와 주택을 포함 1만8000채의 건축물이 소실되었다.

캘리포니아의 산불 뉴스는 연례적이다. 지난 3월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태국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지금 이후에도 우리나라를 포함 세계 각처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한 우려가 매우 크다.

국내는 물론이요, 세계 각국에서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주된 요인을 기후위기에서 찾고 있다.

기후위기, 지구온난화가 지구촌 산불의 범인이고 방화범이라는 것이다. 언론과 과학자들, 각국 정부 모두가 일치된 견해다. 영남지역 산불, 지난 1월 LA 산불 등 각국의 산불의 요인 분석은 공식처럼 비슷하다.

산불이 최초 발화한 이후, '건조한 날씨에 강풍'을 만나 견잡을 수 없는 상태로 번지게 된다. 산악지역에 메마른 토양과 낙엽, 고사목 등은 불타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불씨만 있으며 그들은 불쏘시개가 되어 활활 타오르고 강풍을 타고 빠른 속도로 확대된다.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많다. 지구의 모든 대륙에서 심지어 북극권인 시베리아 알래스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모든 정부가 사전 예방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누천년 불과 함께해 온 인류문명이기에 100% 사전 예방은 불가능하다.

영남지역 산불에서 목격하듯이 대형 산불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 자연생태계

의 파괴, 동식물의 죽음, 기후위기 악화 등 피해가 막심하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6개월 지속되었던 호주의 초대형 산불은 남한의 두 배 가까운 면적을 태우며 5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을 죽였고 이때 발생한 연기 입자가 상층권까지 치고 올라가 지구기는 상승을 부추겼다. 2023년 5개월이나 지속된 캐나다의 대형 산불로 인해 무려 6억4000만톤의 CO<sub>2</sub>가 배출되었다. 2024년 남미 아마존 유역의 산불은 엘니노와 함께 극심한 가뭄과 겹쳐 연간 11만4000건이 발생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었다. 지구 산소탱크 역할을 해온 아마존 열대우림이 대형 산불과 각종 개발로 탄소의 흡수 능력이 현저히 낮아지고 오히려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지역으로 변모하는 것은 아닌지 과학자들은 걱정한다.

산불은 지구가 불타는 현장이다. 사람을 포함, 못 생명이 살아가는 터전을 태우는 일이다.

지구온난화로 점점 더워지고 황폐해 가는 인류의 터전, 지구를 식혀야 한다. 그래야 산불을 잡을 수 있다. 이번 산불로 희생되는 분들의 명복을 빌며 하루아침에 집과 생계수단을 잃은 주민들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바란다.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절대 필요하다. 또한 향후 우리 모두 어떻게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의 주범을 이겨낼 것인지 숙고하고 실천해야 할 때이다.

## 社說

# 의대생 복귀, 의정갈등 정상화 계기되길

## 전남대·조선대 등 복학원 제출

전남대와 조선대 등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의대생이 복귀하더라도 의료 정상화까지 남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강의실 복귀가 의료 사태를 수습하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어렵게 결실을 맺은 의대생의 복귀가 의대교육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31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전남대 의대는 전날 전원 복학 방침을 표명한 휴학생 600명 중 1명을 제외한 599명이 복학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의대도 휴학생 680여명 중 상당수가 복학원을 제출했다고 한다. 앞서 서울대 의대도 휴학생 680여명 중 상당수가 복학원을 제출했다고 한다. 앞서 서울대 의대도 휴학생 680여명 중 상당수가 복학원을 제출했다고 한다. 앞서 서울대 의대도 휴학생 680여명 중 상당수가 복학원을 제출했다고 한다.

있다'는 설명이다.

학생들이 강의실에 복귀하는 것은 공중보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정부도 의대생들이 3월까지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원래 정원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명분은 1년 동안 계속된 의대 교육 파행과 의료 대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복귀를 미루는 것은 학생들 개인에게 불행이면서 장기적인 국가 의료 인력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의료 교육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제 남은 변수는 복학이 수업으로 이어질 것인가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생 복귀로 의료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하루 빨리 의정갈등을 해결해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 시스템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학생들이 복귀를 선택했어도 정상화까지 같은 멀다. 의대 교육 정상화는 학생들의 전원 복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는 데 있다.

# 쌀값 하락·생산비 늘어 벼농사 짓겠는가

## 순이익 24% 감소...대책시급

쌀값 하락과 생산비 증가로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의 수익이 크게 감소했다고 한다. 30일 통계청의 '2024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벼농사 농가의 10a당 총수입은 115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8만원(-6.5%) 감소했으며, 총수입에서 생산비를 뺀 순이익은 27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8만7000원(-24.3%) 줄었다.

순이익률은 23.5%로 전년 대비 5.5%p 하락하면서 지난 2016년 21.2%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뜩이나 지속되는 쌀값 하락 속에 경작비용 증가까지 겹치면서 농가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10a당 논벼 생산비는 88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7000원(0.8%) 증가했다. 직접적으로 위탁영농비(4.7%), 종묘비(12.1%) 등의 상승이 컸다. 결국 20kg당 쌀 생산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4% 증가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적정 생산과 함께 쌀 소비촉진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쌀 재배 면적 감축을 위해 대체작목 육성에 나서고 있다. 2025년산 벼 재배의향 면적은 66만3000ha로 지난해(69만8000ha)보다 3만5000ha(4.9%)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2025년산 쌀 생산량은 지난해와 견줘 4.1% 감소한 344만톤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쌀 소비다. 현대사회의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쌀 소비는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kg으로 30년 전인 1994년 대비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더 이상 쌀값 하락 사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생산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수익성은 떨어지는 지금의 구조는 농가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제일 큰 요인이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의 쌀값 폭락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의무매입을 명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번번이 무산됐다. 분노한 농가들은 정부의 농산물 과잉 수입 중단과 양곡 법 즉각 개정 촉구하고 있다.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폭을 대폭 확대하고 농가를 선제적으로 도울 소득 보전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31일(현지 시간) 태국 방콕의 지진으로 붕괴한 고층 건물 공사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AP/뉴시스

## 서석대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나의 상태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말이 있다면 '벨트슈메르츠(Weltschmerz)가 아닐까 싶다.

독일 작가 장 파울(Jean Paul)이 1827년 자신의 소설 '셀리나(Selina)'에서 처음 사용한 이 단어는 '세계의 고통'이라는 뜻으로, '무자비한 세상 속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낄 때 밀려드는 우울이나 고통 또는 슬픔' 정도로 해석된다. 예상치 못한 계엄과 제주항공 참사, 미뤄지는 탄핵 선고로 인해 나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의 상태도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탓에 다른 이들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슬픔이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다정함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계속해서 굳어가는 마음 위로 감사 대신 불만을, 희망 대신 불행, 배려 대신 이기심을 택하기 일쑤인 하루가 계속되면서다.

그러나 춘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해가 길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길가 곳곳에서 꽃망울을 틔우는 노오란 개나리를 보며 캔슬레 등 언저리가 따뜻해진 이유는 조금 더 따뜻한 햇살 때문만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홀로 한 총리의 파면을 인용한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66조, 제11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한 것도 특검법상 '지체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으로, 파면 결정을 통해 헌법질서를 수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주 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우리는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듯 윤석열에 대한 심판도 법 아래 합당한 판결을 받기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어떤 판결이 나오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법의 절차는 명확할 수 있으나, 국민들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와 경제적 타격은 그리 빠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탄핵 가결'이라는 결과 자체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가 이 사회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확신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에 대한 심판이 최소한의 정의에 응답하는 결정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역사에 남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벨트슈메르츠'라는 집단적 감각 속에서 우리가 함께 견뎌온 시간에 대한 위로이자, 다시금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길 수 있다는 작고 조용한 신호가 되어줄 것임을 믿는다.

오지현 취재1부 기자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